

호시노재심 뉴스 183 후 2012년 8월 15일 발행



모든 증거개시의 대운동을

9·28 도쿄 고등재판소 포위 데모



7·16 안녕히 가십시오 원전집회에 17만명이 쫓겨! (도쿄·요요기 공원제1 스테이지)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원전 반대의 그칠줄모르는 분노와 하나로

■모든 증거개시의 찬동을 모으자

■토쿠시마형무소의 차입방해를 타파하자

우리들은 모든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대운동으로 호시노투쟁을 크게 비약시켜 반드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되찾는 방침을 전국총회에서 확립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작열하는 태양아래 요요기(代々木)공원에 모인 17만명과 함께 원전 재가동 저지.노다정권 타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나라는 이상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자"라는 쫓기가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10만 20만명의 인파가 수상관저 앞에 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현실의 모든 것을 노동자 인민이 뿌리에서부터 날려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쿠시마 변호사회가 "권고서"

6월 22일 토쿠시마 변호사회가 토쿠시마형무소에 대해 "권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작년의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씨의 면회거부와 편지 다섯통의 먹칠을 명확한 인권침해로 인정해 "이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없도록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서"를 아키코씨가 호시노씨에게 우송했습니다. 그러나 토쿠시마형무소는 "일부 말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호시노씨는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호시노씨는 권고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한 장본인이 자신에게 양 좋은 부분을 말소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를 토쿠시마형무소에 집중 시킵시다.

전국에서 찬동서명이 진행중

토쿄 고등재판소는 재심변호단이 반복해서 요구한 모든 증거의 개시를 하지 않은체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것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 "재심을 개시하라"라는 우리들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9월 28일 토쿄 고등재판소 포위 데모에 쫓기하자. 토쿄 고등재판소에 파상적으로 데모를 하자. 모든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찬동과 서명을 모으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결집시키는 정의의 싸움입니다. 이미 국철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의

이시이 신이치(石井 真一)위원장 "후카와(布川)사건" 재심무죄를 쟁취한 사쿠라이 쇼우지(桜井 昌司)씨 "하카마다(袴田)사건" 재심변호단 사무국장의 오가와 히데요(小川 秀世)변호사 후쿠시마(福島)대학 마츠카와(松川)자료실의 이베 마사유키(伊部 正之)선생님 기록영화작가의 하네다 스미코(羽田 澄子)씨 카메라맨의 후쿠시마 키쿠지로(福島 菊次郎)씨, 치바(千葉)상과대학의 김원중(金元重)교수님등 으로 부터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호시노투쟁의 전진과 비약을 쟁취하자.

히로시마(広島)후쿠시마(福島)의 분노와 하나로 8.9 월 총궐기하자.

전국 총회에서 마음에 남은 몇가지 일

공동대표 타이라 오사무(平良 修)

1 원전 반대 투쟁에 의한 세상이 바뀌는 듯한 민중의 움직임.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 국민은 단결하여 자신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세찬 사조.행동의 노도속에서 열린 총회는 민중에 의해 호시노(星野)교수를 국가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합이 들어간 총회였다. 제 2 차 재심청구가 기각된 것에 사법권력에 대한 불신감과 그것에 대한 대결자세가 생생하게 내세워진 총회였다. 참가자의 한사람은 "혁명전야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2 수상관저에 육박한 6월 29 일 원전 반대 대행동 직후의 총회였었기 때문에 "그 운동에 몰두하지 않고 오늘의 총회는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전날의 데모는 20 만명이라고 들었다. "그 숫자에 들떠서는 안된다. 실제 숫자는 그보다 적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힘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의한 동지가 있었다.

3 원전 피해자를 위한 진료소가 후쿠시마(福島)에 개설된다. 총회에서 20 만엔 남짓의 운영모금이 전달되었을때 그것을 받은 후쿠시마에서 온 참가자는 "심료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의 심각한 의미에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 후미야키씨의 메시지에 부응해서 아키코씨는 "목숨을 걸고 후미야키를 되찾을 각오"라고 웃으며 명언했다.

5 연대 인사중에 『"나는 2.3 년 안에 출옥한다』를 총회의 확인점으로서 확보하자. 국가는 호시노씨를 탄압한다. 그러나 민중은 그에 맞서서 호시노씨를 지킨다"라는 뜨거운 메시지.

6 호시노 타카오(星野 蒼夫)씨가 구원운동에 대한 자신의 관계하는 자세를 신중히 발언했다. 그중에 구원운동이 유력한 전례로 하고있는 마츠카와(松川)사건에 언급 "그 재판투쟁에서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참가뿐이 아닌 히로츠 카즈오(広津 和郎)등 지명인사의 개인참가가 큰힘이 되었다"고 말하며 개인참가의 의의를 강조했다.

7 "호시노씨를 되찾기 위해 노동자 학생 시민 농민 종교자등등 여러사람이 마음을 하나로해서 싸우자"
"우리들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여러곳 여러사람들에게 호소하자. 자기의 싸움으로 문화인 시민운동
노동운동 종교자 학생 지역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곳에서 여러사람들에게 찬동을 호소하자."
"2012 년도 총괄과 운동방침"에 명확하게 제시된 구원운동의 원점의 재확인이었다.

전국총회에서의 변호단 발언

20 만명의 힘을 얻어 사법에 도전

변호단장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

요전에 고빈다씨의 재심이 개시되었다. 무척 기쁜 일입니다만 개시 전까지 실로 잔혹한 일들이 있었다.
1 심은 무죄 그러나 무죄로 귀국할 경우 그 이후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일본의 사법권력은 그리해서
구류해서 고등재판소에서 역전시켜 유죄로 몰고갔다. 혹은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 환송심에서는
검찰관이 주장도 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했다.

가장 힘차게 날카로운 싸움을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사법권력은 지배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 전쟁전이 그랬습니다. 1928 년 산둥
(中国 山東省)출병 3.15 공산당 대탄압의 해에 배심법이 시행되었다. 그때 백마에 올라타 군복 차림으로
대심원에 들린 천황 앞에서 도쿄 변호사회의 회장은 "바야흐로 사회는 혼란의 극도에 있다 한사람의
사법권만이 엄연한 질서의 중축이 된다"고 연설했다. 지금 누구도 정치를 신용하지 않는다.
저런 녀석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라고. 지배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그 마지막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법에 대해 어제의 "수상관저 앞 20 만명"을 등지고 도전하고 있는 가장 날카롭고 힘찬 싸움이
호시노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시노재심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증거개시에 있다는 것에
변호단으로서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증거개시를 커다란 운동으로

9 월말까지 우리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하나는 사진 혹은
호시노씨가 네거리에서 봤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실에 관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츠키시마(巖島)교수의
심리학 감정이 용서할 수 없는 판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론입니다. "유도가 부당하지
않는한 허용된다 정확한 홍술을 얻는 수단이다"라는등 엄청난 말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츠키시마(巖島)교수는 올바른 유도따위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의심에 있어서 이번의
고등재판소 11 부 결정을 분쇄하는 보충서를 제출해 동시에 증거개시의 싸움을 여러분들과의
세밀한 연락을 바탕으로 커다란 운동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니시무라 쇼우지(西村 正治)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면회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거나 편지가 먹칠을 당하거나 더욱해서 편지의 수신조차 금지 당한다

그러한 부당함에는 철저히 반격하자. 가장 힘차고 가장 날카로운 일격을 여기서 가합니다.

"보관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변호인 후지타 조지(藤田 城治)

지금 비디오 국가배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시부야(渋谷)투쟁 당일의 상황을 방송국이 뉴스로 방송한 것을 케이시초가 녹화한 영상입니다. 증거로 되어 있는 이 증거물을 재판소가 분실한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 비디오 국가배상 재판입니다. 거기에는 데모대의 움직이는 상황 등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볼수 없는 것으로 인해 재심청구의 방어활동이 방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도쿄토(東京都)는 호시노씨는 증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설령 분실했다 하더라도 호시노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심제도가 있는한 호시노씨의 증거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위탁 보관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또하나 재판소가 어째서 케이시초에 보관을 위탁 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재판소는 비디오 테이프의 보관에 적합한 온도 습도의 면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아서 케이시초에 위탁 보관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가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케이시초에 위탁 보관할 때까지의 2년간은 재판소에 있었으므로 근거가 없습니다. 역시 위탁 보관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의 프레셔를 주는 방청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있었던 기각결정

주임 변호인 이와이 마코토(岩井 信)

제 1 차 재심청구에서는 최고 재판소가 호시노씨의 옷의 색깔에 관한 K씨의 홍술은 신용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의 기각 결정은 적어도 이 제의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제 2 차 재심은 증거개시로 전진

그러면 제 2 차 재심청구에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쟁취 했는가. 하나는 몇가지의 증거개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후 촬영된 철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호시노씨의 사진입니다. 그 철파이프는 새것이며 하얀 종이가 감겨져있어서 범행의 흔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증거개시에 의해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거개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목격자의 홍술조서는 "총괄수사 보고서"안에서 밝혀지는 가운데 6명이 다른 "수사보고서"에서 분명하게 4명분이 아직 개시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중에는 하늘색 복장의 사람이 때리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옅은갈색의 슈트의 상하의를 입은 사람이 때리고 있었다는 홍술뿐입니다. 그러나 호시노씨가 그색깔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최고 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때리고 있었는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가 열쇠가 된다. 그것이 조금전 방침의 "모든 증거개시"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터리 추론으로 신증거를 부정

이번의 결정의 특징은 처음부터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 상징이 심리학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K씨의 검찰관조서는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해 정확한 기억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찰의 유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쿄 고등재판소는 유도했으니까 상세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씨의 홍술조서는 옳다" 처음에 이 결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우리들이 제출한 신증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하얀 종이에 감긴 철파이프는 구타 따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때렸다고 반드시 변형이나 손상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깨끗하다고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철파이프의 표면에는 불선명 하지만 "손상을 입은 듯한 상처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곳에 한줄기의 선갈은 것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손상"의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학적인 증거로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1차 재심청구에서는 증거개시가 하나도 없었다. 제 2차 재심청구에서는 일부이지만 개시되어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기각은 결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거듭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황을 개척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 개시를 중심으로 재심 개시를 향해 싸운다

변호인 와쿠타 오사무(和久田 修)

2월의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에 참가 했습니다. 그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되찾을 수 있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반 후에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틀림없이 재심 개시를 쟁취하는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목격한 사람의 조서가 개시되면 상당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이다. 제 2차 재심에서 신증거로서 이쪽에서 제출한 타카오(高尾)라는 수사관의 "총괄수사보고서"중에 호시노씨는 하늘색의 슈트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라는 기제 내용이 있다. 그것을 숨긴채 공판이 진행되어갔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검찰측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목격자의 조서가 개시되면 옷의 색깔 누가 때리고 있었는가가 명백해질 것이다. 이것은 재심의 문을 여는 커다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모든 증거개시의 방침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려한다.

토쿠시마 면회일기

"하루 하루를 소중히"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

7월 10일 이 한달간 건강했었는가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부터 면회는 시작되었다. 도쿄의 수상관저 앞에 계속해서 "보통사람"이 모이고 있는 상황을 제일처음 전했다. 후미야키는 "15만 20만명의 사람이 모이고있어. 이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도 타흐리르 광장처럼 된다. 후쿠시마(福島)사람들의 분노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직장의 분노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3일 4일 5일 사촌형의 호시노 타카오(星野 蒼夫)씨가 요네자와(米沢)에 계신 어머니의 문안에 같이 가준 것을 전했다. 어머니는 매우 건강하시며 "건강하시네요"라고 말했더니 "아키코들이 와서 그래"라고 말한것을 전했다. 그후 오오코우치 츠구오(大河内 次男)씨의 안내로 미야기(宮城)의 미나미산리쿠(南三陸)나 후쿠시마(福島)의 미나미소우마(南相馬) 이이다테무라(飯館村)를 보고 온것을 보고했다. 이이다테무라(飯館村)에 들어가면 방사선 선량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지는 이이다테무라(飯館村)는 재생운동도 성공 했었을텐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듣는 마을 민요의 멜로디가 슬펐던 것 등을 전했다.

"권고서"를 주지 않는 공격

"토쿠시마변호사회"가 토쿠시마형무소에 대해 제출한 "권고서"를 후미야키에게 보냈는데 받지 못한 것을 알았다. "일부를 말소해도 좋다면 전해주지만 말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해서 "토쿠시마형무소를 고소하는 문서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삼일째의 면회. 예정하고 있었던 콩쿠르에 전시하기 위해 그리고 있는 작품 "체르노빌의 소원"은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3년전에 전시했던 그림이 돌아와서 집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후미야키는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따듯함이 없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오야나기(靑柳)씨를 지금의 정세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총회 자체가 좋았던 것이겠지. 지금까지의 아오야나기(靑柳)씨와의 면회중에서 제일 좋았다"라고도 말했다. "츠지카와 신이치(辻川 慎一)씨가 아키코와 약속해서 나에게 멋진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것을 읽고 국철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의 싸움이 있었기에 호시노씨에 대한 공감도 2.5 토쿠시마데모의 제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국철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도 분할 민영화라는 공격 앞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발자국 한발자국 개척해왔다"고 이야기 했다. 면회가 끝나고 헤어질때 "하루 하루를 소중히"라고 후미야키는 말하며 삼일째의 면회를 마쳤다.